

# 2020 남포교회 제5회 독서 감상문 대회 수상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상 [어린이부] 김범준 (초등3부) 너는 특별하단다4  
[청소년부] 주선우 (중등부) 그 청년 바보의사  
[성인부] 양현정 (장년부) 루이스 vs. 프로이트

은상 [어린이부]  
김인영 (초등3부) 그 청년 바보의사  
백소연 (초등1부) 특별한 크리스마스 약속  
[청소년부]  
김지원 (중등부) 그 청년 바보의사  
이현진 (중등부) 주일 오후 3시, 생각을 줍다  
[성인부]  
김서정 (장년부) 오늘의, 기도  
조경선 (장년부) 루이스 vs. 프로이트

동상 [어린이부]  
이민율 (유치부) 나도 성경을 읽어요  
김민건 (유치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김지유 (유치부) 숲속사진관  
김유준 (유아부) 숲속사진관

\* COVID-19로 인하여 올해는 시상식이 없습니다.

\* 수상작(금상,은상)은 남포교회 웹사이트([www.lamp.kr](http://www.lamp.kr))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월한 사람이 있다고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일까요? 그럼 우린 다른 연예인이나 모델보다 못난 사람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책 《너는 특별하단다 4》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제가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4》의 줄거리를 알아보까요. 이 책은, 한 웹믹(목수 엘리 아저씨가 만든 나무인형) 마을에 유명한 ‘최초고’ 여사가 최우수 웹믹 회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최초고 여사는 아주 거만한 태도로 보더니 편치넬로의 친구 루시아가 우뚝 숲에서 온, 단풍나무로 만든 희귀한 웹믹이라면서 최우수 회원으로 뽑았지만, 편치넬로는 버드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경멸하였습니다. 그후, 웹믹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웹믹은 다른 사람을, 특히 편치넬로를, 오로지 버드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깔보았습니다. 그후 편치넬로가 최초고 여사를 강물로부터 구하고, 편치넬로가 ‘M’ 메달을 뒤집은, 웹믹을 뜻하는 ‘W’ 메달을 받으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재미? 편치넬로가 최초고 여사를 구하는 방법? 저는 모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웹믹들이 우리, 웹믹을 만든 엘리 아저씨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웹믹들이 출생지가 다르다고, 또 만들어진 나무가 다르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깔보았습니다. 웹믹이 아닌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 몇몇 사람들은 출생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몽땅 학살하려고 하였으며, 요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 차별도 웹믹이 한 짓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와 또 우리 모두는 특별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고,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일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만큼, 뛰어난 능력의 운동선수들만큼,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만큼, 제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나는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부모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었다. 처음엔 길고 길고 재미없을 것 같았지만 나중엔 감동적이었다. 제목이 뭔가 심상치 않았따. ‘바보의사’라는 것이 좋지 않은 뜻이지만 웬지 좋은 뜻 같았다.

이 의사는 안수현이라는 사람이다. 안수현 선생님은 아주 좋은 분이셨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에게 이 병자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다. 안수현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손해 보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삶을 사셨다. 이제야 제목의 뜻을 알 것 같았다. 나는 안수현 선생님처럼 남을 위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나는 안수현 선생님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더 찾아보았다. 안수현 선생님은 두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다.

나도 안수현 선생님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나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아직 어린데 안수현 선생님처럼 살 수 있을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노력해서 안수현 선생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겠다.

나는 지금 우리 반 부회장인데 친구들에게 잘 대해주고 부회장다운 행동을 해야겠다. 올해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어색해져서 안녕이라는 말도 못했는데, 내가 먼저 안녕이라고 말을 걸었어야 한다는 후회가 들었다. 안수현 선생님처럼 학교 다닐 때도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셨던 안수현 선생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로 가셨던 안수현 선생님의 삶이,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더 좋게, 행복하게, 더 배려하며 인생을 사셨던 한 바보 같은 선생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왕은 오늘 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했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천사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도 그 소식을 알렸지.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서둘러 새 왕이 계신 곳으로 갔어.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새 왕이 그곳에 계셨지. 그 새 왕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었어. 여기까지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거야.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베들레헴으로 가서 집을 찾았지만, 방이 아무 곳에도 없었는데도, 그 아기를 꼭신하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 더러운 구유까지 가서 꼭신하게 잘 눕혀주는 부분을 읽으면서 아기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었어.

새 왕이 영원한 왕이고, 구원의 왕이라고 쓰여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어.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림 속의 천사의 얼굴이 웃겼어. 그래서 책이 재미있었어.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새 왕이 태어나실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야.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약속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그 청년 바보의사

중등부 주선우

이 책은 이 책의 저자(안수현 씨)가 죽고 난 뒤 다른 이가 그의 기록을 엮어서 만든 것이다. 처음 부분엔 그의 진료나 주님이 생각나게 되는 상황이 주로 담겨있다. 뒤로 갈수록 그의 일상이 드러나며 하나님에 대한 느낌 또한 드러난다. 난 이 책을 읽으며 무엇보다 이 책의 저자가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감탄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나는 나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 부분들을 써보려고 한다.

2장, 〈홀로 남은 의사〉 부분에서 ‘마지막 크리스천’ 부분이 특히나 인상깊었다.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때 당시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파업중이라 여러 개인병원이나 의사들이 파업을 했다. 하지만 이때도 의사의 책임을 다하며 병원을 지키는 이들 또한 있었다. 저자는 여기서 후자에 속하는 인물이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환자들을 위해서이다. 물론 모든 의사가 돈을 위해서 진료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난 이 장면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파업을 하지 않고 일하는 안수현 씨를 인상깊게 보았다. 정의롭다랄까? 그런 느낌이였다.

또 감동스러운 부분은 5장, 〈외로운 양치기〉에서 ‘홀딱 젖다’ 부분이다. 안수현 씨는 서점에 가던 중 한 초보운전자의 도움 요청에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 차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안 굴러 간다는 것이다. 이 차를 빼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안수현 씨 옷에 튀게 되고, 젖은 옷으로 서점을 간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었다. 그러곤 그는 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며 다시 집으로 갔다. 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 안수현 씨라면 하나님보다는 그 초보운전자에게 화부터 냈을 것이다. 물론 내가 아니고 다른사람이었어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 하지만 그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며 의미있는 행동을 했다고 흔쾌히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곤 마지막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다보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말한다.

내가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나 또한 주일마다 교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주님이 살아가라는 대로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안수현 씨처럼 생각을 못하는가? 생각해보니 교회만 성실히 다닌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나와 안수현 씨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다른 것 같기도 하다. 난 하나님을 주로 내가 필요로 할 때 찾고 부르지만 안수현 씨는 필요로 할 때만이 아니라 불필요할 때, 평범한 일상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 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대하였던 태도들을 성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다음으로 인상깊었던 부분은 3장, 〈아주 특별한 처방전〉에서 ‘내과 중환자실 11번

침대' 편이다. 남편의 횡포로 집을 가출하게 된 K 씨는 가출 3일 후 혼수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온다. 안수현 씨는 이분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한다. 그러곤 주변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오고 찬양테이프와 같이 준다. K 씨는 점점 신앙인이 되어갔고, 퇴원 후에는 감사의 편지와 성경책, 테이프를 돌려준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안수현 씨의 모습이 감명깊었다.

거기다가 이 3장의 이름이 '아주 특별한 처방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 K 씨 측면에서는 아주 특별한 처방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난 보고 있다. 나 또한 어렸을 때 전도를 한 적이 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난 그 이유가 뭔가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보았고,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은 것 같다. 바로 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일반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 전도 실패의 경험과 전도를 실제로 하게 된 안수현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하는 방법, 전도 해야 하는 사람을 배워 앞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보면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인상깊었던 부분은 1장, 〈그 청년 바보의사〉에서 '지금,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 부분이다. 소아과 실습중 안현수 씨는 신우라는 아이를 만나게 된다. 둘은 책을 통해서 친해지게 된다. 시간이 흘러 안현수 씨는 신우의 어머니의 편지를 받게 된다. 그는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아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 이후 퇴원한 신우는 다시 입원하게 되고 둘은 다시 만난다. 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후로 신우는 다른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나는 특히 마지막 구절이 인상깊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맞는 말이다. 꼭 이성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친구간, 부모간의 사랑도 포함이 된다. 나 또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는 시간을 많이 내어주고 나의 좋은 친구들하고 놀 때도 시간을 내어준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평소와 같이 친구들하고 놀 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내어줄 때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동안을 생각해보면 내 행복, 내 이익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었지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어준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난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평소보다 조금씩 더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읽었다. 책 제목이, 의사인데 바보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의사는 원래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야지만 될 수 있는데 의사가 바보라는 게 좀 이상했다. 그러나 책을 통해 이해가 됐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안수현 의사 선생님이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잘 느껴졌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무 남들을 위해서 살아서 바보의사라는 호칭이 붙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바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고 바보가 항상 나쁜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사람들이 안수현 의사 선생님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무엇에 빠졌을 때 어떤 것에 미쳤다고 한다. 미쳤다는 것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바보와 같이 예수님에게 미쳤거나 남을 위해서 사는 삶에 미쳤다는 것처럼 좋은 의미로 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예수님도 바보처럼 살다 가셨다. 남을 위해서 구원하고 고쳐주고 말씀을 나누며 핍박을 받고 가셨다.

바보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위한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보처럼 산다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은 되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안수현 선생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살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장 훌륭한 삶을 사셨다. 예수님처럼 남에게 베풀고 사랑해주고 신경 쓰고 용서해주고 등등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

나도 안수현 선생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보같이 살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연습하며 매일매일 남을 위해서 살면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보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겠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안수현 의사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핸드폰, 돈 등 세상의 것들이 나의 우선순위이다. 안수현 선생님은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신 것 같다. 이런 점을 본받아 나도 안수현 선생님처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며 제 생각과 활동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계시리라 믿었던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과 불신의 짝이 부딪혀 과연 계신가의 의심하게 되었고, 가족과 교회보다도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상생활 중 주일 말고는 하나님이 잘 떠오르지 않고, 주일마저 온라인 예배로 인해 기계적으로 출석체크를 하고 학교강의를 듣듯 즐기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나날이 지갑은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어찌다 거지가 되어 버린 저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정 이유는 만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지 않은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은 많아졌습니다.

〈#복〉에서는 어쩌면 제가 얽은 신앙심으로 매일 하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정의〉에서는 성경의 사랑이 충만한 정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배우자〉와 〈#스킨십〉은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배우자를 찾아주실거라 믿고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인권과 양성평등을 원하는 저로서 가장 관심이 갔던 차레는 〈#성평등〉이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동영상 댓글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으며,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권하여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으므로 성경적으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다’는 어리석고 무지한 댓글이 오르 본 뒤, 화가 났지만 진짜인가 싶어 성경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성을 약자에서 이끌어내려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또한 남성의 차별적 시선을 알게 되며 여성의 인권 보장과 함께 남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에서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에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음을, 〈#말씀〉은 성경의 여러 난해한 구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진정한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예배〉는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니 예배당에 가지 못하더라도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회개〉는 회개를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보는 ‘행위’라는 것을 알립니다. 〈#희년〉은 땅의 사적인 소유를 금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희년〉은 잘 이해되지 못한만큼 언젠가 다시 찾아보고 싶습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가 산타할아버지가 오는 날이라는 것 말고 예수님이 계신다



는 것을 상기시키고, <#인도하심> 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말고 선택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본> 에서는 이웃의 어퍼함을 따라 사랑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하고, <#소명> 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당신의 인생 자체가 소명이므로 평범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라 합니다. <#습관> 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억하는 습관을 쌓으라고 하고, <#싫증> 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최대한 애쓰라고 합니다.

책을 읽은 후, 기억나는 저의 생활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채로 감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냥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씨앗이 사라진만큼 바로잡힌 신앙 생활을 하려 노력하려고 합니다. 상품을 위해서 교회활동에 참여하고, 보상을 위해 하나님께 갈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사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려고 합니다.



### 들어가면서

여기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 두 사람의 무신론자가 있다. 그들은 훗날 영문학과 심리학이라는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로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기에 이른다. 루이스와 프로이트. 한 사람은 무신론을 버리고 영적 세계관을 받아들였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무신론자로 남았다. 무엇이 유사한 경험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란 이 두 사람에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렸는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 무신론 vs. 유신론

우리는 모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우주가 우연한 사건들의 결과이고 삶은 우연적인 일이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우주를 초월하여 실재하는 지성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들은 옳거나 그른 답이 없는 철학적 고찰이 아니라 상호배타적이어서, 한 사람이 옳다면 다른 한 사람은 반드시 틀려야 한다. 세계관은 가치와 윤리, 행복을 수용하는 능력을 결정하며, 우리는 대개 어떤 형태로든 프로이트나 루이스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

프로이트(Sigmund Schlomo Freud: 1856~1939)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철학자이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본성이 심리적 결정론에 기초하며, 무의식이 행동과 정서를 규정하고 생의 초기 6년간의 중요한 심리발달단계에 따라 전개되는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충동(libido)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지나치게 성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과학적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하나, 자신의 내면을 보다 솔직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인간의 시야를 더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들은 사회학, 의학, 교육학, 윤리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작가이자 영문학자로서 철저한 무신론자였지만 31세 때 회심한 후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변증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등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다.

프로이트는 ‘지식은 오직 과학적 탐구에서 온다’는 증명될 수 없는 철학적 가정을 전제로, 영적 세계관에 대해 상상력의 결과물이라며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반면 루이스

는 성경적 세계관은 사람이 소망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은 바라는 대상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소망 자체가 그러한 존재에 대한 증거’라고 했다.

루이스와 프로이트는 많은 부분이 서로 닮았다. 기질적으로 염세주의와 좌절감, 부정적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인생 초기 상실의 경험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정서는 무신론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이트의 철학적 저술은 감정적이며 논쟁적이었고, 인간관계는 줄곧 적대적이었고 사람에게 대해 낮게 평가했다. 두 사람 모두 명예를 중시하고 인정 욕구가 강했으나, 루이스는 회심 후 명예욕이 교만의 증거임을 알게 되었고, 낙천적이며 친절하고 외향적인 성품으로 바뀌었다. 죽기 전까지 명랑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았으며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나날을 보냈다. 마치 나이들어 가는 것을 즐기는 듯했던 루이스는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프로이트는 일생동안 반유대주의로 인한 거부와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상처받았고, 오랜 질병으로 삶을 비관했으며 안락사를 택함으로써 생을 마감했다.

### 위대한 변화

재능있고 지적이며 비판적이고 전투적인 무신론자였으며 세계적인 명문대의 존경받는 교수이던 C.S.루이스는 자신의 무신론과 매우 상충하는 세계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의 변화가 매우 단계적이고 지적이었으며 단순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한다. 아주 어릴 때 형이 만든 장난감 동산을 보며 천국의 모습을 상상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초록빛 언덕이라든지 그의 삶 속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장소나 사람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느꼈다. 이를 ‘기쁨’이라 부르고, 이 깊은 갈망이 창조주와의 관계에 대한 욕구였다는 것을 한참 후에 깨달았다. 대학 시절 프로이트의 무신론은 흔들렸지만 루이스는 그보다 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그가 숭배했던 작가들과 절친한 친구들이 신자였고, 무언가에 집요하게 쫓기는 느낌을 받던 어느날 루이스는 그들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음을 열고 증거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루이스의 지성은 지식의 부족이 불신의 근거임을 일깨워주었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며 예수를 자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살아있는 실재로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루이스는 행복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있다’(I AM WHO I AM)이다.

프로이트는 주고받은 편지와 저술을 통해 끊임없이 종교적 세계관에 반론하며 또한 자신의 세계관과 철학을 납득시키려 애쓴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서 종종 오류와 결함이 발견된다. 프로이트는 보편적 도덕률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개

님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부모의 권위가 투사한 존재로 보고 종교적 믿음을 망상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투쟁적이고 적대적이면서도 성경을 자주 인용하였다.

지성인이란 회의(懷疑)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 자신이 믿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고 전제하는 태도, 이와 충돌하는 뭔가를 목도했을 때 스스로를 수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성인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프로이트의 삶은 신의 존재와 초월적인 힘을 믿지만(혹은 알지만), 정신분석이라는 굳건한 문을 걸어 잠그고 끝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노력으로 점철되었는지 모르겠다.

31세에 느닷없이 찾아온 삶의 대변혁은 루이스를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했을 뿐 아니라 밖으로 향하게(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였다. 새로 정한 인생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창조주와의 관계,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 기쁨(Joy)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행복보다 더 간절히 바라고 정의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주제도 없을 것이다. 행복의 목록은 끝이 없지만 목표를 획득한 사람 모두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트는 행복을 쾌락, 특히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쾌락과 같다고 본다. 또한 지속적인 행복에 대한 기대를 비이성적이라 주장했다. 루이스는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으로써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성경에 기록된 ‘기쁨’에 관하여 집중하여 묵상한 적이 있다. 이때 알게 된 것은 성경 속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세상적 쾌락이나 보상이 주어질 때 기뻐하는데 반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뜨겁게 밀려왔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존재 자체이며, 기쁨은 곧 하나님 자체임을 알았다.

기쁨이란 두려움 없이 평안한 상태로써,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박영선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언급하신 바 있다. 또 『하나님과 팬데믹』에서 톰 라이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저 마음 속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와 축하한다는 뜻으로써,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좀 떨어진 거리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나타낸다고 했다(느12:43).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벅찬 기쁨, 즉 환희에 가까운 것이다. 신자의 삶이 비록 갈등

과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일지언정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으니 어찌 모든 순간 기쁘지 아니할까? (그러니 주일아침 교회에 웃는 낯으로 모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는가!)

프로이트의 삶과 회심 전후 루이스의 삶을 살펴볼 때, 인간의 세계관이 행복을 경험하는 능력(‘행복’이 아니라)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된다. 회심으로 루이스의 염세주의와 우울은 기쁨으로 변했고 힘겨운 야망의 짐은 자유와 많은 만족스러운 관계로 바뀌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기까지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 맺으면서

여기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있다. 프로이트의 무신론적 인생철학(과학적 세계관)과 루이스의 종교적 세계관(영적 세계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두 사람이 일생동안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에 대한 질문과 답이 우리 삶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공정하게 조사하고, 대답하는 두 관점의 세계관으로 인간의 삶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를 권유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과 도덕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이 더 가치있고 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결론짓는다. 혼동에 머물 것인가 빛으로 나갈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대면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루이스는 ‘열기로 선택했다’. 일생을 바꾼 위대한 변화는 자유의지를 지닌 개인의 선택의 몫임을 루이스는 삶을 통해 증명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신다. 그것만이 기쁨이고 자유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 청년의 기도 ]

시간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시간의 작은 틀 안으로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삶의 계절로 엮어내시는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모든 자연과 인생의 찬양이 담긴 박나나 권사님의 기도문을 따라 읽습니다.  
유년의 때에 움크려 떨었던 날들과  
청년의 때에 체념한 날들이 지겹고 서러워서  
여전히 제 기도는 가쁘게 혈떡이는 숨처럼 뻑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노년의 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짧아질 인생의 겨울에는,  
영광스러운 나이에 갖든 장성한 기쁨으로  
신앙의 선배들처럼 풍성한 여백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지난날 상심의 땅에 파묻어버린 소망들도  
주의 열심과 은혜로 푸른 싹을 틔우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땅을 비옥케 하는 양분으로 썩게 하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리운 마음 ]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물샷틈없이 완성하실 역사를 찬송합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에 그저 감격할 뿐이나  
막상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권사님의 기도를 좇으려니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꿈에도 소원하는 천국에는 주님이 없다 하시니  
답 없는 오늘에 함께 계실 주를 깊이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없는 허망한 천국으로 도망치지 않고

현실의 정황 속에서 충성된 역할로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만 주의 영광을 귀로 듣사오나  
언젠가 눈으로 직접 뵈을 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양말을 신고 신발을 찾아와 끈을 동여맵니다.  
권사님의 고백처럼,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봄날의 기다림 ]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는 선하신 뜻을 필히 이루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수고로이 태어났다는 야베스처럼  
저도 하필 사순절에 태어나 더 고달픈 인생이라 여겼는데,  
새봄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권사님의 찬가에  
어쩐지 낯선 기분으로 봄날의 생일을 다시 묵상합니다.  
3월의 어느 날,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생으로 창조를 입고 보내져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다 지쳤지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고,  
구원자가 이미 오셨다고 하시니  
오늘은 한 번 기꺼이 삶을 끌어안아 봅니다.  
여전히 야속한 침묵 속에 남겨진 아득한 소원들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보이지 않는 별들처럼,  
해 지기 전 아직 세어볼 수 없었을 꿈처럼,  
그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뿐입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스포일러 ]

위대한 역사서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생명의 빛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기도문 너머로 권사님들의 눈부신 은퇴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삶의 수많은 장면에서 주의 자녀 된 명예를 지켜내고  
이제 아름다운 완성을 덧입으시는 선배들을 보니 참으로 부럽습니다.  
제 인생의 페이지들도 어서 빨리 넘겨버리고  
과정 없는 결론으로 건너뛰고만 싶은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길은 멀고 앞은 보이지 않는데  
왜 주의 말씀은 고작 내 발의 등일 뿐인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욱한 안개의 끝을 속히 확인하는 것보다  
이 길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더듬는 것이 더욱 복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와 함께 읽어내기 원하오니  
주여,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충분한 이유 ]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주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신비가 참으로 크시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관계 안에 두셨듯  
우리를 주의 몸 된 지체로 부르셨으니 그 지위가 실로 부요합니다.  
오늘은 기도문 속에서 교회 어르신들의 애뜻한 유대를 보았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깊은 연합에 이르신 권사님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위대한 화목을 성취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서로 품고 일으키기 원하나이다.  
온라인으로만 뵈는 반가운 목사님들께도  
이 어지러운 시대, 사람 앞에서 하나님 편들 넉넉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께서 다시 모으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단지 예수 이름 함께 붙잡은 사이라는 구실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충분한 이유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인생의 신비를 엿보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 아니 그보다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

여기 한 사람은 처음엔 구원받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엔 구원을 받아들였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기를 선택할 듯 하면서도 끝내 거절해버렸다. 바로 C. S.(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야기이다. 무엇이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했던 그들의 사고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 것일까? 개인적 소견으로 그 단서를 다음의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루이스와 프로이트 둘 다 도덕률에 복종하려 했는데, 프로이트는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다"고 결론지었다. 루이스는 자기 행동을 도덕률이 요구하는 바와 비교했고, "나 자신의 성격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질겁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은 그가 무신론을 버리고 영적 세계관으로 이행하는 많은 단계 중의 하나가 되었다. (p.104)

즉, 프로이트는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실체로서의 자기를 성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깊이있게 체험하지 않았던 것 같다. 반면에 루이스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보편적인 도덕률("루이스는 역사상 모든 문화, 심지어 이교도의 문화에서도 사람들이 도덕률을 알았으며 도덕률에 따라 사는 데 실패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p.90)에 비추어 자신의 죄악된 성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 깨달음을 통해 겸손히 외부(=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12)

이처럼 그들의 다른 사고관은 이후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에도 많은 차이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의 개념이란 역사상 많은 사상가들이 정의내리고자 시도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정의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다. 누구에게

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없이 각 사람이 느끼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개별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과 반대되는 불행의 개념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듯 하다. 막대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라도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의미있는 관계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탓이다. 의미있는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존재, 개념으로써 채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인생 목적은 정의하기도 어렵고 실체도 모호해 보이는 행복 추구에 있지 않다. 루이스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에 대하여 인간을 이 곳에 자리잡게 한 분과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넣어야 작동할 수 있도록 인간이라는 기계를 만드셨다. 당신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고 먹을 음식이 되신 것이다. ……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p.142~143)

<미국 정신의학>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심을 경험한 사람(=저자가 수행한 하버드 대학교 학부생 대상 ‘종교적 회심’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한 학생들을 조사하는 연구 과제의 실험대상자)들은 회심 전 기존의 건강하지 않았던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부정적이었던 자아상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었다고 한다(p.110 참조).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심을 통하여 회복되기 시작하면, “회의와 염세”라는 안경을 벗고 건강해진 시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실존적 절망감에 따른 염려와 불안은 줄어들고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을, 전체 중 특정한 일부분만 부각시켜 미화해버린 사랑(=에로스)과 왜곡된 성(性)으로 마치 충족하게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부추긴다. 여기에 대한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기반을 둔 정신분석 견해와 루이스의 문학과 철학의 풍부한 지성적 고찰과 어우러진 영적인 견해 양측 모두 흥미롭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프로이트의 견해보다는 루이스의 견해 쪽이 설득력있게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신앙 경험과 가치관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일 것이다.

두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삶의 고난 혹은 고통을 통해 어떤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하며 멀어져 가는 가하면 또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의심하면서도 그 분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다. 반유대주의에 따른 차별과 배척,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혹은 사별로 인한 깊은 상실감, 질병에서 비롯된 육체적 고통은 프로이트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더욱 회의감과 반발심을 갖고 멀어지게 했다. 역시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로 인한 깊은 슬픔, 참혹했던 전쟁 참전의 부상 경험으로 인한 평생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의심하고 분노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되었다. 비슷한 인생 경험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행보를 걷

게 되는 걸까?

사람이 살아가는 한 평생의 삶은 참으로 순탄하지 않은 것 같다. 이처럼 고단한 인생에서 죽음은 견디기 어려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로서 선택되거나 또는 만족스러운 삶의 기쁨을 불시에 앗아가는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기피되기도 한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경기 중에 경기의 진행상황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권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운동경기의 목적이 메달을 받는 우승 순위권 안에 드는 데에만 있다면 그 경기는 재미와 감동은 덜 할 것이다. 마라톤 종목이 올림픽 대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유는, 그 종목 자체가 흥미진진한 운동 종목은 아니지만 메달 순위권에 들도록 우승한 선수들 외에도 경기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코스를 완주해서 결승 지점을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들어오는 선수들의 외롭고 힘들었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루어낸 승리가 치열한 승부를 앞다투는 여느 종목과는 또다른 스포츠의 진한 감동을 전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의 순간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안락사를 선택한 프로이트와 달리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진 일상을 평온하고 쾌활하게 살아냈던 루이스의 임종이 주변인들에게 여운과 귀감을 남긴 것도 마라톤 경기가 주는 감동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